



4면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날개'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음 2월 2일) 제29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에 송하진 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및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등 예산 확보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전투표로 새로운 봄 앞당겨 달라”

민주당, 투표 참여 호소  
尹·安 단일화에 ‘야합’ 비판  
도민께 ‘심판해 달라’ 강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투표로 새로운 봄을 앞당겨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진환 선대위가 4일과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또 국회의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로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운명을 가르는 대진환 선거가 시작된다”며 “4일과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해 새로운 봄을 앞당겨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과 김윤덕·신영대·김수홍·한병도·이원택·양영숙 의원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밤중 이뤄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합을 전북도민께서 사전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드라마였다면,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코미디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단일화를 두고 “윤·안 야합이다. 전북 도민께서 민심으로 심판해 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윤덕 의원은 “윤석열과 안철수의 야합은 새로운 정치교체로 귀결될 것”이라며 “안하무인 윤석열과 경계명동

안철수를 국민과 전북도민이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대선은 절박함과 안일함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며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안일하게 선거운동에 임해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다. 반면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했던 정몽준 후보가 투표 전날 지지를 철회했을 때는 절박함으로 선거운동에 임해 57만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확신한다”며 “꼭 사전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홍 의원(익산갑)은 “지금쯤은 절체절명의 위기다”며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과 함께 정치교체를 이뤄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겠다”고 한 약속을 했다”며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했다. 이합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복수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심판해야 한다.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가짜뉴스를 포함해 단일화 논란이 있었다. 이제 이들의 단일화로 모든 안개가 걷히고 선명해졌다”며 “국민이 판단할 인물은 이제 두명이다. 경제를 망칠 것이냐 살릴 것이냐 검찰공화국으로 가느냐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국가로 가느냐에 대해 도민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자신했다.

양영숙 의원(비례)도 “끝까지 뛰겠다”고 선언했던 후보가 갑자기 단일화를 선언해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단일화가 국민들을 후세무민하고 있다면서 이는 “적폐 세력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유호상 기자

## ‘9조원 시대 개막에 최선’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장정 돌입

송하진 도지사 주재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서

주요 5개 분야 10조9700억원 규모·480여건 발굴

전북도가 3차에 걸쳐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480여 건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9조원시대 개막을 목표로 생태 문명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2023년 국가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3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TPT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80여 건, 11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신규사업은 시작년도 예산부입은 적지만 지속·안정적 재원확보의 기초가 되는 사업들로, 이번엔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라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SOC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플러스터 구축, 삼라농정농생명 분야로 국제제약박람회장 구축, 식물

성기반 대체육류산업화센터 기반 구축, 여행체험1번지 분야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위봉산성 원형 회복 및 경관 개선, 새만금·SOC 분야에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이 있다.

끝으로 환경·안전·복지 분야로 서남권 산림치유고원 조성, 한국 탄소중립 지원 체형교육원 건립 등이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부처 직접사업 확대, 계속되고 있는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기류 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 실현을 위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등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새만금 SOC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 등으로 2023년 국가예산 확보여건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전망이다.

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가예산 9

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이번엔 발굴된 신규사업 논리 보강과 함께, 부처실링 배정 이전인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부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5월 부처예산(안) 편성 전까지 새정부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발굴된 사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 단계부터 상황에 따른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각 부처 예산 편성에 대응해 전북도 국가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100대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해 사전 설명활동을 전개한다.

대선 이후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 과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인수위 단계부터 주요 국가예산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황변화에 대응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사전투표

도내 2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도내 2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v.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돼 24시간 촬영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거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뜨거운 함성, 태인 3·1 독립만세운동!

항일 민족 독립운동의 중심지, 애국애족의 고장 **정읍**

태인 3·1운동 기념탑

정읍시 JEONGEUP-SI